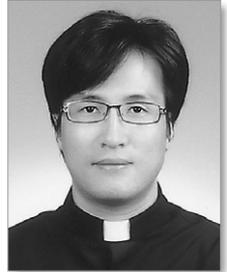


주일의말씀

##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이성호 요한 신부  
교구 사목기획실장  
겸)성소 및 신학생복음화담당



마르코 복음 사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 세례자 요한을 등장시킵니다. 광야에 나타난 요한은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의 기원은 창세기 3장의 인류의 타락에서 서술되어 있습니다. 첫 인간 아담과 하와의 죄는 뱀의 유혹을 받아 하느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동산 한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것입니다. 겉보기엔 하느님께서 명하신 것을 어긴 것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행동은 단순히 일종의 지킬 계명을 어긴 것 이상으로 그 안에 엄청난 죄과를 품고 있습니다.

뱀은 여자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창세 3,5)

첫 인간들이 지은 죄는 하느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 열매를 따 먹었다는 단순한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느님 없이, 하느님보다 앞서서, 하느님을 따르지 않고, 하느님처럼 되기를” (가톨릭교회 교리서 398항) 원했던 것, 자신의 자유를 남용하면서 그토록 교만했던 것에 그 죄과가 있습니다.

반면, 회개의 축구를 선포하러 광야에 선 세례자 요한은 하느님 앞에 첫 인간이 보였던 무한한 교만이 아니라 한없는 겸손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마르 1,7)

그렇습니다.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대림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회개는 (고백하면서도 죄에서 오는 부끄러움도 사실 그다지 느끼지 않는) 주일 미사 몇 번 빠졌다는 형식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하느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교만을 떨었음을 인정하는 것, 내가 선과 악을 모두 아는 하느님인양 내 주변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단죄했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하느님 말씀의 빛으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성형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

생명의말씀

너희는 주님의 길을 굳게 내어라. (마르 1,3 참조)

제1독서 : 이사 40,1-5,9-11 제2독서 : 2베드 3,8-14 복음 : 마르 1,1-8.

## 정의와 사랑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소명 - '사회교리 주간' 제정에 즈음하여 -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신자들이 사회교리에 관심을 갖도록 올해부터 해마다 인권주일부터 한 주간을 '사회교리 주간'으로 지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회교리'는 정치, 경제, 인권, 노동, 평화, 환경, 생명 등의 사회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복음적 시각으로 성찰하고 정리한 교회의 공식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1891년,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새로운 사태」 이후 100여 년의 사회적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난 2004년에 「간추린 사회교리」를 발간 하였습니다.

사실 많은 신자들이 「가톨릭교회 교리서」에서도 다뤄지는 사회교리를 잘 모르고 용어조차 생소해 합니다. 사회교리는 가치관의 혼란 속에 있는 한국 사회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도덕적 가치를 일깨우고, 정의와 공동선을 통해 참된 인간 발전과 완성을 지향하게 해줄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인공피임, 낙태, 사형제도, 안락사, 배아연구, 4대강 개발, 핵발전소 정책,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을 반대해 왔습니다. 교회는 사회교리를 바탕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지닌 불의하고 비도덕적인 측면들, 특히 생명을 파괴하고, 탐욕을 앞세워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의 가치를 파괴하는 오류들을 지적해 온 것입니다.

한편, 교회의 사회적 발언과 참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법(747조)은, 교회가 인간의 기본권이나 영혼 구원과 관련된 사회 질서에 관해 윤리적 판단을 내릴 소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현장인 사회를 복음화하기 위해, 사회와 사회 구조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교회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정의와 평화로 참된 인간 발전을 증진시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사랑의 새 계명을 선포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합니다. 사회교리는 교회가 불의와 폭력을 고발할 의무가 있고, 특히 가난하고 약한 이들의 권리를 판별하고 수호하여 사회 정의를 세우라고 요청합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2012년 세계 주교 시노드의 주제로 정한 “새 복음화”의 방법은 바로 사회교리의 실천입니다. 각 교구에서는 ‘사회교리학교’ 등을 통해서, 각 본당의 사목자들은 강론과 교리교육을 통해 사회교리를 적극적으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평신도들은 현세 질서를 쇠신할 예언적 수행의 사명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회교리를 잘 배우고 실천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의와 사랑으로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총을 기원합니다.

2011년 12월 4일 인권주일

이 용훈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이용훈 주교

### 빵만으로 사는게 아니라...

박성규 엘리지오





오늘의 미사

대림 제2주일  
인권주일, 사회교리 주간

입당성가

90 구세주 보내주소서

화답송

◎ 주님, 저희에게 자애와 구원을 베푸소서.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513 면병과 포도주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파견성가

91 구세주 빨리 오사

영성의 향기

:: 하느님을 향한 신뢰

당신을 믿고 맞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하느님의 약속을 우리는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에페 1,5)라고 말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 약속을 이루어주시려고 당신 외아들의 목숨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고 또 하실 것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분이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꾼 약속이기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하느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죽이는 이들도 용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채우는 힘이신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이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신이 초라하다거나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림 제2주일

- 교구사목국 권가타리나 수녀 -

교부들의 지혜

늑대들 가운데 보내진 양



우리가 양처럼 되면 승리하고 수만 마리 늑대의 무리로 둘러싸인다 해도 이겨냅니다. 그러나 늑대처럼 된다면 패배당하고 맙니다. 그 때엔 목자의 도움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양이나 비둘기처럼 되라고 하면서 늑대의 무리 가운데 보내라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사자보다 더 힘세게 만들어 모든 고통을 피하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의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의 <마태오 복음에 대한 강론>에서 -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성모당 전대사 미사**  
일시: 12.8(목) 11:00

**모임/행사**

**사회교리 주간(대림 2주간) 행사**  
기간: 12.5(월)~7(수) 19:00~21:00, 도원성당  
주최: 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제23회 성음악 발표회**  
일시: 12.5(월) 19:30, 동구문화체육회관  
문의: 가톨릭음악원, 255-4847

**떼제기도회**  
일시: 12.10(토) 20:00, 삼덕 젊은이성당  
**빛사랑 성탄 음악제**  
일시: 12.17(토) 18:00~22:00

신청: 다음카페 젊은, 빛 사랑, 신청순: 200명  
대상: 함께 음악을 즐기고 싶은 분  
회비: 5천 원(저녁, 기념품 제공)  
주관: 예수성심시녀회 수녀원

**성소/피정**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성소 상담**  
시간: 08:00~17:00 언제나 가능(대상: 젊은이)  
문의: 622-4408(camelids@hanmail.net)

매월 첫 토요일 기도(17:00)에 초대합니다  
**수도 전통에 따른 멕시코 디비나 입문 피정**  
제29차: 2012.1.25(수)~29(일)

제30차: 2012.8.1(수)~5(일)  
장소: 성 베네딕토회 왜관 피정의 집  
지도: 허성준 가브리엘 신부(OSB)  
문의: (054)971-0722, 피정비: 20만 원

**마리아의전교자프란치스코회 겨울 피정**  
주제: 우리가 얼굴을 마주할 때까지  
함께: 12.30(금)~1.1(일)(35세 이하 미혼 여성)

개인: 19(일)~11(수), 13(금)~15(일)(35세 이하 미혼 여성)  
문의: 이 리디아 수녀, (010)2570-0939  
장소: 흥천기도의 집, 피정비: 2만 원

**교육/모집**

**“부모 교육” 강의 봉사자(재능기부 형식) 모집**  
내용: “가정안에서의 자녀교육”을 위한 주제별 강의

주제: 발달심리, 가정 교육, 부모의 가치관, 가정안에서의 자녀신앙교육 등의 관련 세부 주제  
신청: 12.10(토)까지

문의: 교구 청소년담당, 250-3064~6  
**성요셉아버지학교·어머니학교주관 대림피정 안내**  
주제: 대림을 맞이하는 우리 가정

일시: 12.18(일) 10:00~16:0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 남산동 대신학원  
강사: 수원교구 가정사목연구소장 송영오 신부  
문의: 2대리구청, 743-7010

**제4기 성교육 전문 강사 양성과정**  
기간: 2012.1.5(목)~11(수)  
문의: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653-7755(www.dgsay.net)  
**가톨릭문화관 교육생 모집(476-6211)**  
통기타, 바이올린, 플루트, POP, 초크아트

블래인팅, 천연비누, 천연화장품  
**목주·성물 전시회**  
아름답고 품위 있는 목주와 성물 전시, 보급

기간: 12.8(목)~18(일), 주일도 문을 엽니다  
장소: 대구 바오로딸 서원(동성로 공평동)  
문의: 425-5185 / 425-5373

**2기 교회음악 지도자 오디션**  
일시: 12.10(토) 13:00  
곡목: J.S.Bach의 Invention

3성부 중 한국곡 / 성가 중 한국곡  
문의: 프란치스카눔, (070)4266-0045  
임도미니코 사비오, (010)5383-0650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주 영어마을 초·중학생 영어캠프 선착순 모집**  
캠프기간: 2012.1.2(월)~14(토), 2주간

접수기간: 11.21(월)~12.16(금)  
접수: www.gev.ac.kr  
문의: (054)777-8000

**푸른평화예술치료연구소 에니어그램 7회기**  
일시: 2012.1.3(화) 10:00~12:00  
대상관계부도교육 8회기

일시: 2012.1.4(수) 10:00~12:30

장소: 푸른평화예술치료연구소  
문의: 794-6022 / (010)3513-2225

**가톨릭대학교 기숙 영어캠프 모집**  
과정: 제15회 가톨릭대학교 주니어 영어캠프  
기간: 2012.1.1(일)~20(금), 3주 기숙

장소: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부천소재)  
대상: 초3~초6학년, 중1~3학년  
문의: (032)341-5411, http://junior.catholic.ac.kr

**통신으로 배우는 신학과정(신인생 모집)**  
원서접수: 11.7(월)~2012.2.10(금)

내용: 신·구약, 신학일반(그리스도론 등)  
대상: 세례 받은 평신도와 수도자  
문의: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신학교육부,

(02)745-8339(ci.catholic.ac.kr)  
**제39차 마신부님 아일랜드 영어 연수**  
초·중·고: 2012.1.4(수)~27(일)

\*아일랜드 학생들과 함께 정규수업  
대·일반: 2012.1.8(일)~2.19(일)  
국립 더블린 대학교 또는 EID학원

문의: 그린피스 E&T, (02)3446-4253  
**안 내**  
**교구법원 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이지영(안젤라), 서현정(골롬바), 이해경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1년 대상자  
문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 발견에 좋습니다.

**[새로운 100년의 첫걸음 나눔 캠페인] 교구 사회복지회 집중모임 안내**  
2011년 11월 27일 ~ 12월 25일  
아기예수님을 기다리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대구 069-10-000445 ☎ 422-3411

미사	일시	장소	미사	일시	장소
밀알우원회 및 시각장애인 신교회 윌레미사	12월 5일(월) 오전 11시	계산주교좌성당	꾸르실리스따 윌레미사	12월 5일(월) 오후 7시 30분	꾸르실료 교육관
경주지역 군중우원회 윌레미사	12월 5일(월) 오전 11시	성동성당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성시간 및 미사	12월 5일(월) 오후 10시	한티순례자의집
5대리구 성소우원회 윌레미사	12월 5일(월) 오전 11시	인동성당	해외신교우원회 윌레미사	12월 8일(목) 오후 2시	성모당

결혼정보회사  
**마리아 요셉 결혼 이야기**  
(초혼, 재혼)  
전국대표전화: 1566-6205  
대구 - 070-8827-6207  
부산 - 051)817-3885~8  
서울 - 02)579-3889  
02)3141-3888  
http://www.mjms.co.kr  
대표 김순자(마리아)

**2484 익스프레스**  
칠곡 313-2484  
서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한여기(바오로) 011-514-3855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상담소**  
474-0025, 476-9275  
가톨릭문화관 2층  
남대구우체국 옆 교대역 입구  
권중문 (파비올라)

**승월타올**  
\*인쇄무료\*  
이영용(베드로), 심옥섭(미카엘라)  
☎ 010-9431-3276, 629-0745  
대명2동 199-1번지 교대영 영선시장 내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치질·치루·항문병 수술  
**♣ 선일외과의원 ♣**  
원장, 전문의: 배선익(사도요한)  
지하철 2호선 범어역 3번출구, 수성못방향 → 300m  
TEL: 745-6633~4

**전기매트,온수**  
전기요,난로,안마의자,소형가전  
(주)매일가전 T:604-3301  
전자관 1층-239호(대구유통단지)

사회복지법인 서정결 대구교재단  
**데레사소비센타**  
수익금 전액은 사회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청과, 아채, 선어, 정육  
\*신선, 가공식품, 공산품, 생필품  
\*생활, 패션잡화, 수입주방, 수입가전  
765-1500 (어린이회관맞은편)  
대표이사 장영일(그리산도)신부